

업계동향

▲ 대통령각하 한국카아길 방문

지난 5월 20일 박 경희 대통령은 구로동 수출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을 살피고 경기도 수원시 근교에 있는 한국카아길 사료 공장을 예고도 없이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어리둥절케 하였다.

박대통령은 김정웅 공장장의 안내로 공장의 제조공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유지 첨가에 대하여 전문가에 가까운 질문을 하면서 보다 값싼 배합사료의 생산으로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료업계의 애로점도 청취하였다.

▲ Weninger박사 질병에 대한 세미나를

한국세이버협회 주제로 개최하다

지난 5월 29일(금요일) 서울 세운예식장에서 업계인사 약 5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캐나다 세이버 육종농장의 부사장 Robert Gray씨의 “세이버 종계의 발전과정” 해설에 이어 동농장의 수의부문 수석 고문 Otto Weninger 박사의 “닭병의 최신 방역 대책” 특히 마력병 백신 프로그램과 콕시들통증에 대하여 4시간에 걸쳐 진지한 강연이 있었는데 강연의 통역에는 본 한국가금협회 오봉국회장님과 영남대학교 축산대학장이고 한국가금협회 경북지부장이신 이학철박사가 수고하여 주셨다.

▲ 영육농장 김영희 사장 도미 시찰 후 귀국

김영희 영육농장 사장은 지난 5월초 캐나다·미국·일본 등지를 시찰하고 6월초 귀국하였다.

캐나다의 세이버 원종농장을 방문하고 동사의 고위 간부와 의 상담 및 미국 각지의 축산업계 특히 사료 공장과 축산물 처리공정을 살피고 일 본을 거쳐 귀국하였는데 이는 종합농장인 영육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료첨가제업자 회의

지난 5월 12일 서울에 있는 각 첨가제 및 동물약품 제조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계 전반에 걸친 의견 교환을 가졌다.

본 모임에서는 판매가격의 적정수준 유지로 과당경쟁의 지양, 협회의 구성으로 공동이익의 추구, 협회의 법인화(法人化) 등 진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준비위원으로 유한양행·대한신약·한국비타민헤드쿼터스 등 3개 회사가 선정되어 관계 회칙 및 문제점의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후 재차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년전에 구성되었다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금년에 들어 다시 본격화되었는데 본 모임에 참석한 회사는 상기 소위원회 이외에 극동제약·서울약품·수도미생물·비명캐미칼·중앙제약 등이다.

▲ 서울 육계(부로일러)의 부산 진출

서울의 전용 육계가격이 4월달 현재로 170원 선까지 하락됨에 따라 부로일러업자의 불황은 심각한 위기에까지 도달되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 및 근교의 일부 업자들은 지방 도시로의 판매를 개척하였다. 소사의 소신종계원 등은 육계를 부산·대전 등지로 수송 판매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공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등신종축장 부산에 지점 설치

서울의 대규모 부화장의 지방 진출의 적극적인 개척이 활발한 이때 등신종축장은 부산과경 부화장과 계약을 맺고 우선 초생추를 공급시키고 있는데 곧 이어 종계(세이버 및 등신 종계)도 분양 공급하리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 각 부화장의 비대에 따른 지방 부화장의 상대적인 위축을 의미하며 선진 외국에서 갖는 판매조직의 일원화 및 각종 계의 판매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의 강화 및 애프터서비스의 극대화·전문기술의 분업화 등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하이라인」지 창간 1주년

월간지 하이라인이 지난 5월호로서 창간 1주년을 맞았다. 비매물이며 하이라인 대번지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양계잡지로서 많은 붓수를 배

부하는 본지는 전국 각도에 1개소(전남은 2개소)씩의 대리점을 통한 배부조직을 통하여 나가는 하이라인지의 발전이 기대된다.

▲ 서울사료 시판 개시

서울사료(대표 박도현)는 지난 5월에 첫 제품을 생산하여 주로 주주들이 생산량의 전부를 구입하여 왔으나, 6월초부터는 일반 양계업자들에게 시판을 개시하였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본 사료 공장은 부화 및 양계업자들이 투자가이며 주주라는데 그 특징을 두고 있어 실제 사양업자들로서도 이 공장의 사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 봉암양계단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에서는 봉암양계단지내의 양계업자 군내 유지 및 본 단지를 계속 후원해준 미국 아동구호연맹 한국지부 등 내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단지 회관 낙성식을 가졌다. 운택한 농촌 살림과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할 등 단지 조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재용씨와 이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한 관제 인사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와 같은 협업 형태의 단지 조성은 우리 나라와 같은 영세업자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며 양계업계의 적극적인 지원 계몽이 필요하다.

▲ 천호부화장 종계 수입

지난 5월 29일 미국 웰프라인 종계 13,000여수를 수입하였다.

수입된 종계를 세목별로 보면 웰프라인 542백색 대란계 3,700수, 웰프라인 대형 육용계 2,450수, 버프 갈색 산란계 4,600수, 웰프라인 갈색 산란계가 2,600수로 되어 있다. 특히 버프 갈색 산란계는 우리 나라에 처음 수입되는 닭으로서 500일령 체중이 2.2kg 미만의 소형 갈색계로서 케이지 사육에 적합하고 많은 수수의 사육을 하는 전업양계가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 북부사료

신제품의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여온 북부사료는 금번 피·에스(P.S)와 프레믹스를 도입하였다. 피·에스는 피리메타민 내성균의 출현으로 인하여 「피리메타민 만으로는 류코사이토증을 치료할 수 없다」는 일본의 秋葉和混씨의 시험보고에 따라 피리메타민과 설파제를 결합하여 만든 특수 처방으로서 류코사이토증 및 기타 질병의 예방에도 우수한 효과를 인정받았다 한다. 프레믹스는 고단위 종합 사료첨가제로 한국의 사양조건에 알맞은 조성을 지니고 있다 한다.

▲ 한국가금협회 월례강습회

지난 6월 6일 한국가금협회 월례강습회가 신촌에 소재하고 있는 축협회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있었다. 그런데 이날의 연사로서는 한명복씨(수색양계장 대표)와 최창해씨(서울농업대 교수) 오 봉국씨(서울농대 교수) 등이었으며 연제는 노천양계의 장 단점(한명복)으로서 실제 청공양계의 경영자로서 아직까지 경영 및 사양에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등을 여러 청중과 같이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기초양계장(최창해)은 산란계의 선택과 도태를 위한 지침이 되었고 부로일러 종계를 위한 사료 배합(오봉국)은 많은 청중과 특히 사료 공장의 기사들에게는 큰 관심거리였다. 약 150여명의 청중이 참가한 이날 강습회는 오후 6시경에 끝마쳤는데 다음강습회는 7월 4일 있으리라 한다.

▶ 업계인사 ◀

- ★원용택 : 대한사료 축산부 차장 : 지난 5월 21일 도일하여 업계 시찰 마치고 5월 30일 귀국
- ★정성억 : 퓨리나사료 구매부장으로 취임(서울농대 출신).
- ★김충정 : 천호부화장 업무부장으로 입사(서울농대 축산과 졸업).
- ★성기열 : 전 이오 목장장 : 경북개발(주)의 영업부장으로 취임(서울농대 졸업).